문학·음악·미술 … 이번엔 나도 문화예술가

광주문화재단 예술교육센터
꿈다락학교·특성화문화교육
어린이·청소년·가족 대상
55개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지난해 태이움직임연구소가 진행한 '2016토요문화학교' 참여 어린이들이 풍선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다. 〈광주문화재단 제공〉

말바우 시장서 펼쳐지는 아빠와 딸이 함께하는 요리 교실, 엄마의 인생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글을 쓰고 자수를 놓는 프로그램, 우리 동네 이야기로 직접 만들어 보는 뮤지컬, 예술과 철학·문학을 만나는 인문학 교실, 재즈로 편곡된 광주의 노래 배우기….

내가 직접 문화예술 활동의 주인공이 되보는 건 어떨가.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센터가 '2017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이하 지특교육)'과 '2017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이하 꿈다락)'을 본격 시작한다. 센터는 공모를 통해 두 사업의 운영단체 55개를 선정했다. 문학, 음악, 무용, 미술, 마술 등 장르도, 참가 대상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센터 홈페이지에서 각 프로그램을 꼼꼼히 살피고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일부 프로그램 진행비 발생)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지역의 문화적 환경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다.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최종 20개 단체에게 3억9600만원을 지원했다.

광주전남작가회의의 '문화예술작품으로 읽는 미시적 오월 역사'는 5월을 형상화한 문화예술작품들을 통해 오월을 재구성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극단 토박이와 아트컴퍼니원은 학교밖 청소년과 장애 아동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문화놀이터 가을은 '말바우 시장과 함께하는 아빠와 딸의 뒤죽박죽 요리 교실'을 진행한다.

그밖에 창작집단 '유유자적'은 '우리마을 아티스트, 광주Re에 빛담다'를, 애드뮤직 컴퍼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재주 많은 재즈 이야기'를 개최한다.

각 프로그램은 4월부터 11월까지 20~25차시 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참여 대상은 장애인, 노인, 이주민 등 문화소외계층을 포함한 지역 주민이다.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자녀들 문화교육에 관심 많은 학부모들이 반길 프로그램이다. 아이들만 따로 참여하기도 하고, 부모가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많다. 주 5일제 수업제 시행에 따라 초·중·고생과 가족의 문화예술 체험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총 35개 프로그램에 7억원을 지원했다.

'지구발전 오라'가 진행하는 '도시 정글 속 아지트'는 우리집만의 아지트를 건설하고 자급자족 생존법을 탐구하는 프로그램이며 광주에코바이크가 진행하는 '훈이오빠와 함께 떠나는 광주 탐험'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을 탐험하며 마을 지도와 영상을 만들어 보는 기획이다.

또 극단 청춘은 예술극장 통에서 배우, 연출, 극작, 조명, 음향 등 연극 관련 직업체험을 해보는 '예술가를 꿈꾸다'를 운영하며 '마술여행'은 '나도 마술사가 됐어요'를 진행한다.

그밖에 '양림숲, 예술과 만나다', '보일락 말락 빛과 함께하는 시간 미술 여행', '가족밴드 동림동락', '창작목공 체험 피노키오의 꿈다락'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8~30주 과정으로 운영되며, 지역 어린이, 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체별 프로그램은 11월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프로그램 정보와 일정, 신청방법은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gjarte.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토요문화학교 062-670-5763~4, 지역특성문화예술교육 062-670-576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故 한창기 선생을 아시나요?

"이 잡지만은 빌려주지 마세요."

지난 1986년 4월 3일자 동아일보 5면에는 이색적인 문구의 광고가 실렸다. '샘이 깊은 물 '4월호 발매를 알리는 광고카피였다. 광고는 '잡지를 빌려주지 말아야 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어느새 '뿌리깊은 나무'(샘이 깊은 물의 전신)처럼 가장 많이 읽히는 잡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빌려주시면, 돌아온다손 치더라도 때묻고 해져 오기 십상이어서, 오래 간직하고 자주 꺼내 보시려는 독자는 생돈들여 보존판을 따로 사야 합니다. 게다가, 빌려주시지 말아야 발행부수가 계속해서 늡니다. 그리고 발행부수가 늘어야(많이 팔려야) 이 잡지의 내용을 끊임없이 더 살찌울 수 있습니다."

잡지를 돌려 보다니, 이게 무슨 말인지 싶겠지만 '그때'는 정말 그랬다.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아 읽을거리가 귀했던 터라 잡지나 만화책을 돌려 보는 사람이 많았었다. 특히 그 시절 '샘이 깊은 물'은 인문과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여성에겐 필독서였다.

내가 근무하는 광주일보 편집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매월 초 잡지가 배달되는 문화부에는 '웨이팅 리스트'(대기자 명단)가 존재할 만큼 인기가 많았다. 당시 막내 기자였던 나는 선배들이 먼저 구독하고 난 후 너덜 너덜(?)해진 책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퇴근 후 집에 가져가 방바닥에 배를 깔고 책장을 넘기며 탐독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무엇보다 '뿌리깊은 나무'와 '샘이 깊은 물'의 진가는 콘텐츠였다. 특히 1976년 창간된 '뿌리깊은 나무'는 국내에선 처음으로 한글전용 가로쓰기를 표방했다. 또한 전문사진작가를 기용한 편집디자인과 자연생태, 우리말, 전통문화, 예술을 다룬 기획들은 매번 화제를 모았다.

특히 '뿌리깊은 나무'와 '샘이 깊은 물'이 각별하게 느껴지는 건 발행인 고 한창기 선생(1936~1997) 때문이다. 보성 벌교 출신인 그는 순천중, 광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출세가 보장된 법조인의 길을 거부하고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한국지사 창립자가 됐다. 1980년 전두환 정권에 의해 강제폐간된 '뿌리깊은 나무'와 '샘이깊은 물'(1984~2001년)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데 헌신했다.

올해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이들 잡지와 인연을 맺은 김명곤 전 문광부 장관 등 예술계 인사들이 최근 서울시청내 갤러리에서 20주기를 추모하는 '뿌리깊은 나무의 미래' 전을 열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런데 정작 고향인 지역에서는 이렇다 할 기념사업을 찾아볼 수 없어 아쉽기만 하다. 더욱이 그의 삶과 발자취가 고스란히 묻어 있는 '순천시립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의 존재를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아 쓸쓸한 20주기가 될 것 같다.

사실 문화적 측면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과 삶은 그 자체로 브랜드다. 그들의 삶과 업적을 스토리텔링화 해 캐릭터, 영화, 연극, 출판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하면 경쟁력 있는 문화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이 인물마케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동물원의 포크&락 콘서트

26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수요 작은 음악회

광주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수요일 아름다운 작은 음악회 4월 무대는 '동물원의 포크&락 콘서트'다. 26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1987년 1집 '거리에서'를 발표하며 데뷔한 동물원(사진)은 모두 아홉 장의 정규 앨범을 발매, 1990년대 청년들의 꿈과 일상을 대변하는 잔잔한 음악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초창기에는 김광석, 김창기 등 뮤지션들이 함께 참여했었고 현재는 배영길(보컬·기타), 박기영(보컬·건반), 유준열(보컬·기타) 등 3인조로 재편돼 29년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변해가네', '흐린 가을하늘에 편지를 써' 등 감성적인 노래로 꾸준한 히트곡을 발표하며 대중에게 사랑 받아온 동물원은 최근 13년 만의 신곡으로 컴백했다. 미니앨범 '다시 돌아 봄'으로 추운 겨울, 각박한 세상 속에서 어지러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잔잔한 위안을 던지는 곡이다.

이번 음악회는 '혜화동',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변해가네', '말하지 못한 내 사랑' 등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던 히트곡들과 따뜻한 이야기가 함께하는 무대다.

티켓 가격 일반 2만원(회원30%), 청소년 1만원(회원50%). 문의 062-613-823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 22일 가족 뮤지컬 '어린이 캣' 상연

국립광주박물관이 봄나들이 철을 맞아 노래하는 고양이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린 가족 뮤지컬 '어린이 캣'를 22일 오후 4시 교육관 대강당에서 상연한다.

'어린이 캣'은 다섯 고양이의 좌충우돌 성장기를 통해 꿈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공연이다. 예쁜 고양이들의 귀여운 몸짓과 역동적인 춤, 열정적인 라이브 음악과 노래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또한 어린이 시각에 맞춘 독특한 특수 분장, 화려한 무대장치와 아기자기한 소품으로 특별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6세 이상부터 입장 가능하며 19일부터 홈페이지 (gwangju.museum.go.kr)에 서 사전 예약 받는다.

문의 062-570-7025.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상가 건물 매매 경매 / 투자 전문 | 010-7384-7800 010-6670-9800

전남 영광군 전원주택 매매

전원주택 강력추천
■ 광주에서 40분

▣ 토지 151평
건물 42평 (준공2년)

가장조용하고 아늑한 동네
내부깔끔 / 주차 완비

◈ 시세 1억5천만
매가 1억1천만(융2천)

동구 수기동 상가매매

20층 중 6층(45평)

▣ 천변로 전망 최고
리모델링 완비/주차 완비
▣ 보 1천만-월 70만

▶ 시세 1억6천
매가 1억1천(융5천)

▣ 북구 중흥동 모아 A.P.T
15층 중 10층 (50평)
방 4개 욕실 2개 (내부 깔끔)
매가 2억3천

▣ 상무지구 상가매매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옆
상무지구 중심가 / 수림오피스텔
매가 7천200만

▣ 광양 상아 아파트 매매
15평 - 12층 (전망 최고)
광양시청 / 광양산업단지 5분
매가 3천만

평택 전문

토지 (경매, 건설개발) 하실분 모집

① 전원주택토지 투자자 모집

송탄 터미널 5분
총 1,700평
전망 최고 / 전원주택 강력 추천!!

(시 세) - 평당 200만
(선착순) → 평당 150만

② 개발 부지(271평) 코너자리

송탄역 5분 - 송탄 터미널 1분
위치최고 / 분양 최고

▶ 매가 33억
개발시 순수익 50억!!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경매물건추천

▣ 동구 금남로 5가 (8층중 4층 상가)
토 53평, 건 340평
롯데백화점 옆
광주 가장 큰평수, 가장 저렴한 가격
▶감정가8억 → 최저가 1억8천

▣ 광산구 쌍암동 (무인텔)
토 415평, 건 577평
첨단지구 쌍암공원 1분,
총 룸 28개 (월수익 3,000만 예상)
보 2억 월 1천만 (임대가능)
▶감정가 45억 → 최저가 31억

▣ 광산구 하남 (7층중 4층 상가)
토 36평, 건 95평
하남 홈플러스 인근, 6차선 대로변 접
▶감정가 7억7천 → 최저가 3억4천

▣ 서구 쌍촌동 (숙박시설)
토 86평, 건 340평
1층(상가) 2층~5층 룸 총 33개
월수익 1,000만예상 / 운천역 1분
▶감정가 11억 → 최저가 7억8천

▣ 서구 치평동 (세정아울렛 1층)
토 21평, 건 34평
상무역 1분, 상무지구 최고 중심가
▶감정가 16억 → 최저가 7억2천